

신규간호사의 홀로서기 경험

곽수영
계명문화대학교 간호학과
e-mail:sykwak@kmcu.ac.kr

Newly Graduated Nurse's Stand Alone Experience

Su-Young Kwak
Dept. of Nursing, Keimyung College University

요약

This study is a phenomenological study to describe and understand the nature of this experience by clarifying the meaning and structure of the new nurse's experience of standing alone.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nurses who had less than one year of hospital work experience and had work independence experienc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new nurses' solo experience could be structured into 4 categories, 26 theme collections, and 52 themes.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 experience of standing alone that the participants are experiencing reflects well that they are making efforts to survive even though they feel ambivalence about leaving the company because they are not able to handle the work due to being independent from work without being prepar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신규간호사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의료기관에 근무한 지 첫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간호사이자다. 간호학생에서 간호사로서의 새로운 역할 전이과정에서 신규간호사는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역할전이 과정이 모호하여 신규간호사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항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신규간호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주로 새로운 역할과 관련된 다차원적 책임, 경영과 조직체계상의 문제 및 임상기술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 특히, 질적인 간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증가로 인하여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신규간호사는 초기 업무과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우선순위와 의사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어 불안과 압박감은 더욱 증가된다. 2017년 취업 후 1년 이내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42.7%로 나타났고, 이는 보건복지사업 종사자의 이직률인 2.16%의 약 16.4배에 해당하며, 평균 간호사의 이직률인 15.7%의 2.25배에 해당하였다.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일반간호사의 이직률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고, 간호직에 대한 회의나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신규간호사들까지 감안한다면 잠재적인 이직자는 더욱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여겨진다. 신

규간호사의 간호직에 대한 직무만족감이 저하되면 이는 이직으로 연결되고 높은 이직률은 간호사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새로운 인력 모집과 훈련에 소모되는 경제적 손실 및 궁극적으로는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매우 중대한 문제라 하겠다. 신규간호사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규간호사들은 적응과정에서 간호지식 및 기술의 부족과 미숙한 업무수행능력으로 인하여 새로운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대부분 업무수행과 관련된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숙련된 간호사의 부족을 초래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주게 되며, 결국 전체적으로 간호의 질과 전문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더 나아가 국가적 간호 인력 수급의 문제를 초래하며, 환자의 사망률, 감염률 증가 등의 안전 문제를 일으키고 국가 의료사업의 질적인 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어 양질의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간호사로 성장시켜 전문적 간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신규간호사는 처음 입사후에 프리셉터를 통해 1:1 교육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업무 독립을 하게 된다. 업무독립은 신규간호사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게 되어 신규간호사로 근무

하는 시기 중 업무독립 직후에 가장많은 신규가 이직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현재 신규간호사의 홀로서기 경험을 주제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신규간호사의 홀로서기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홀로서기를 이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기술하고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개인들의 생생한 경험으로부터 경험의 보편적 본질과 의미를 밝힘으로써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론이다. 이 연구방법은 개인들의 공통적인 경험 속에서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규명하여 제시함으로써 현상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므로 현상학적 연구는 신규간호사의 홀로서기 현상을 이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이들의 관점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이들의 갈등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신규간호사가 경험하고 있는 홀로서기의 의미와 경험의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이 경험의 본질을 기술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의 홀로서기 경험의 본질을 이들의 관점에서 규명하고 기술함으로써, 추후 신규간호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략 마련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규간호사가 경험하고 있는 갈등의 의미와 경험의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이 경험의 본질을 기술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홀로서기 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이 경험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2.2 연구참여자

연구 참여자로는 병원근무 경력 1년 이내의 간호사로 업무독립경험이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여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기 원한다고 응답한 자로 선정하였다.

2.3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대학원 과정에서 질적연구방법론을 수강하고 질적연구 세미나와 학술대회에 다수 참석하여 질적연구 수행

을 위한 역량을 쌓았으며, 현상학 및 근거이론방법론을 적용하여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연구자는 임상실습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이므로 신규간호사가 경험하는 홀로서기의 구조와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 시작 전, 진술 녹음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며 수집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 그리고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면담장소는 서로의 대화가 방해받지 않으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면담에 임할 수 있도록 방학 중 연구실에서 실시하였다.

2.5 자료분석

참여자의 개별 면담자료에 대한 분석은 Colaizzi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제1단계에서는 면담 내용의 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각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얻었다. 제2단계에서는 면담 내용의 필사본을 읽으면서 참여자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는 진술문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진술문을 중심으로 주요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제3단계에서는 주요 진술문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한 단계 더 추상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하였다. 제4단계에서는 의미들 중 유사한 것들을 통합하고 분류함으로써 주제를 조직하고, 주제를 묶어 주제모음으로, 주제모음을 묶어 범주로 조직하였다. 제5단계에서는 주제모음들이 나타내는 현상을 주제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제6단계에서는 임상실습 중 간호학생의 갈등 경험을 범주, 주제모음, 주제를 통해 기술하였다. 제7단계에는 참여자로부터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2.6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면담 전, 연구의 목적과 면담 방법, 비밀보장과 익명성, 자발적 연구 참여 및 중단 가능성, 연구 후 면담 자료의 폐기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면담 내용의 녹음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였으며, 컴퓨터에 필사할 때에는 이름대신 번호로 저장함으로써 면담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였다.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시로 기프트콘을 지급하였다.

2.7 연구의 엄격성 확보

자료분석을 위하여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필사하여 사용하였고, 참여자 1인당 필사한 자료는 A4 용지 3~7장 분량이었다. 자료분석은 Colaizzi의 방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 1)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녹음한 후 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 내용과 의미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2) 신규간호사의 홀로서기 경험과 의미를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 3) 추출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 용어로 재진술하였다. 4) 추출된 의미로부터 참여자들의 경험 전반을 공통으로 포함하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 5) 주제를 비슷한 것끼리 모아 좀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모음으로 구성하였다.
- 6) 주제모음을 타당화하기 위해 원자료와 비교하며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 7) 분석된 내용을 통합하여 연구 현상의 본질적 구조를 총체적으로 기술을 하였으며, 연구참여자 2인과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1인에게 분석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10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은 원자료에서 추출한 주요 진술 중 구절과 문장을 주의 깊게 살펴면서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진술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들 의미로부터는 일반적인 의미를 도출하여 참여자의 임상실습 중 갈등 경험을 나타내는 주제로 구성할 수 있었으며, 이들 주제는 더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도출된 주제모음과 범주로 구조화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홀로서기 경험의 범주는 ‘등떠밀려 나옴’, ‘감당안됨’, ‘양가감정’, ‘그래도 살아남기’였다. 참여자의 홀로서기 경험을 범주와 여기에 포함된 주제모음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범주 ‘등떠밀려 나옴’에 해당하는 주제모음에는 ‘준비가 덜 된채 독립함’, ‘중압감에 사로잡힘’, ‘자신감이 떨어짐’, ‘불안함’, ‘시간이 부족해 식사를 거름’, ‘업무과약이 잘 안됨’, ‘스트레스가 심함’, ‘업무들이 짐덩이로 여겨짐’, ‘죄책감’, ‘우울함’이 포함되었다.

“저는 업무독립 한줄도 몰랐어요. 갑자기 업무독립이래요 그때 어느순간 프셉이랑 듀티가 달랐고 뛰지 하고 있었는데 내 버려졌어요 진짜.”

범주‘감당안됨’에 해당하는 주제모음에는 ‘예견치 못한 업무는 감당이 안됨’, ‘비수가 되는 말들’, ‘부족한 역량에 무너지는 마음’, ‘출근이 두려움’이 포함되었다.

“진짜 밥도 못먹고 계속 일만했는데 인계줄 때 되면 아무것도 안한 애가 되어 있어 버리고 나는 정말 숨쉴틈 없이 달렸는데 진짜 맘을 계속 흘리면서 일만 죽어라 했는데 인계 때 되면 나는 도대체 뭐했는데가 되니까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저도 저같은 신규에게 인계 받으면 어쩔수 없는 연대 책임이 드니까 그거 다 이해하니까 사실 할말도 없고 그랬어요.”

범주‘양가감정’에 해당하는 주제모음에는 ‘죄송한 마음’, ‘양가감정’, ‘퇴사를 결정하게 되는 마음’, ‘타직종과의 갈등’, ‘가족을 생각하며 퇴사의 마음을 접음’, ‘속생애하는 가족’이 포함되었다.

“가족의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만둘 수 없었어요 내가 진짜 일을 못하고 피해만 컸으면 나간다는 사람 안붙잡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애쓰는 거를 알아주시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생각이 들어서 퇴사 번복을 하고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범주‘그래도 살아남기’에 해당되는 주제모음에는 ‘프리셉터제도는 긍정적인 경험’, ‘격려가 되는 말들’, ‘적응하기 위한 노력’, ‘힘을 얻게 되는 것들’, ‘업무독립의 의미’, ‘고단한 신규의 삶’이 포함되었다.

“빨리 1인분을 하고 싶어가지고 남아서 귀탕이 컴퓨터 가서 인계장 쪽 복사해서 오고 인계어떻게 드릴지 정리하고 집에 와서도 인계 취보고 연습하고 그리고 업무에 딱 들고 다닐 수 있는 노트 만들어서 시술들어갈 때 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쌤들이 어떻게 노티를 하는지 그러면 어떤 오더가 따라오는지 이런것도 정리해 놓고 동기들이랑도 한번 으쌰으쌰해보자고 해서 동기언니 한테도 막 정보도 좀 얻고 요약 정리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근무를 했어요.”

4. 결론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의 홀로서기 경험의 의미와 경험의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이 경험의 본질을 기술하고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적연구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병원근무 경력 1년 이내의 간호사로 업무독립경

험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신규 간호사의 홀로서기 경험은 4개의 범주와 26개의 주제 모음, 52개 주제로 구조화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참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홀로서기 경험은 준비가 덜된채로 업무독립을 하여 업무가 감당되지 않아 퇴사에 대한 양가감정을 느끼지만 그래도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1] 황혜남, 이윤신. "신규간호사의 극복력 경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권 10호 pp. 656-667, 2021년.
- [2] 서연옥, 이경우. "신규간호사의 삶의 경험." 간호행정학회지 19권2호 pp. 227-238, 2013년.
- [3] 임보미, 박종민, 김미진, 김수연, 맹정호, 이루리, 강경아. "종합병원근무 신규 간호사의 이직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4권4호 pp. 313-322, 2015년.
- [4] 윤희장, 곽은미, 김현수. "신규간호사의 현실충격 경험에 관한 포커스 그룹 연구." 질적연구 19권2호 pp. 102-111, 2018년.